

>>> 피플웍스



국내 제조업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고도성장을 일구고 있는 이동통신 중계기 업체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기지국용 핵심 부품인 RF파워앰프의 국산화 개발 및 생산을 위해 LG 정보통신(현 LG전자로 합병)에서 분사 설립된 피플웍스(대표 우준환)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1월 서울에서 구미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인텍웨이브에서 사명을 바꾼 피플웍스는 끝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 사례이자, 전 직원이 매년 함께 지리산 종주를 하는 회사로도 유명하다.

2000년 6월 LG정보통신에서 분사

현재 피플웍스의 사업분야는 크게 디스플레이 사업과 방위사업, 이동통신과 CCM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LCD TV용 인버터가, 이동통신은 중계기 및 파워앰프가, CCM 사업은 휴대 전화기용 카메라 모듈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피플웍스는 초기 이동통신 사업에 주력하다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조직을 사업부제로 전환하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전환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선의를 경쟁을 통한 발전' 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으로 이를 극복해냈다.



한 관계자는 “사업부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인 2004년에는 매출이 창사 이래 최저인 150억 원에 그치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조직혁신과 안정화 노력, 신규 사업 개척 등에 힘입어 2005년에는 매출이 257억 원으로 회복됐으며, 작년에는 무려 7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 파워앰프 기술 개발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이동통신 분야에서 피플웍스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원가 절감 노력과 운용 및 유지 보수 획기적인 개선 노력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LG텔레콤과 협력해 CFR 기술을 적용한 중계기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시그마 교육과 원가절감 지원 톨 교육을 통해 저가의 소형 HPA 기술 적용, 중계기 핵심 모듈 자체 개발, 차세대 서비스를 위한 장비 투자 확대, 기술 및 원가 혁신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플웍스는 여러 경쟁사를 제치고 2006년 LG텔레콤 중계기의 최대 물량을 확보하는 등 이 분야에서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연구개발에 매년 매출 대비 10% 투자

피플웍스는 보다 큰 전진을 위해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 매출의 10%에 이르는 30억~40억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해 미래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또, 이익의 일부를 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 포항 흥해공고, 경북기계공고 등 학교의 장학금으로 기탁해 지역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사내 모임인 상호회를 통해서도 지역 내 어려운 환경의 소년소녀 가장 돕기, 수해 지역 봉사 활동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업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인터뷰_ 피플웍스 우준환 사장



“올해 1000억 원 매출 달 성으로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것”

- 최근 수년 동안 고속성장 하고 있는데, 비결이 있다면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람'이다. 무한경쟁 하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한 품질, 원가 혁신의 실현으로, 이러한 혁신의 원천은 바로 우리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올해 목표와 안정적인 수익기반 마련 방안은

올해 목표는 매출액 1000억 원 달성을 통한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이다. 더 나아가 미션 2009 라는 목표 하에 2000억 원의 매출 달성 및 기존 사업의 시장 확대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마켓 진입을 위해 중국 등 현지투지도 추진하고 있다.

- 직원들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던데

개인과 회사 모두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강한 체력이다. 이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 등산, 축구, 농구 등 체육행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매년 6월 창립기념일 전후에 하는 지리산중추가 가장 큰 행사로, 200여 전 임직원이 50Km에 달하는 험한 산길을 함께 하다보면 모두가 하나가 된다. 또, 이 행사의 완주를 위해서 개개인이도 자연스럽게 평소 체력관리를 하게 된다.